

# '완벽한 첫 등판' 오승환 "만원 관중 앞에서 던지고 싶어"

### 자체 청백전 두번째 투수로 1이닝 무실점 최고구속 147km... '라팍' 마운드 첫 경험

‘끝판대장’ 오승환이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홈 구장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마운드를 처음 밟아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오승환은 1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자체 청백전에 청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147km까지 나왔다. 투구수는 16개.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실전 투구를 소화하긴 했지만, 캠프를 마치고 귀국한 뒤로는 첫 실전이었다. 특히 라이온즈파크, 이른바 ‘라팍’ 마운드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오승환은 삼성의 굳건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다 2013년을 끝으로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 입단했다. 이후 2016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고 지난해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 콜로라도 로키스를 거쳐 지난해 삼성에 복귀했다.

삼성엔 오승환이 해외에서 활약하던 2016년 대구 시민구장에서 라이온즈파크로 홈 구장을 옮겼다. 친정팀에 복귀한 오승환에게는 새로운 환경이다.

복귀한 지난해에도 오승환은 라팍 마운드를 밟지 못했다. 복귀와 동시에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올 시즌을 대비했기 때문. 이날 등판은 라팍 첫 경험과 함께 재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5회말 선발 최재홍(4이닝 1실점)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 첫 상대 이현동에게 5구만에 유격수 땅볼을 유도했으나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를 허용했다.

그러나 도루 저지로 주자를 없애고 뒤 박해민을 좌익수 뜬공, 박계범을 중견수 뜬공으로 각각 처리했다.

6회말이 되자 예정대로 유규민이 등판해 오승환의 실전 점검은 마무리됐다. 7회까지 진행된 경기는 젊은 선수들이 활발한 타격을 펼친 청팀의 4-1 승리로 끝났다.

경기 후 오승환은 “캠 복귀 후 오랜만에 실전이었고, 한국에서도 오랜만에 투구를 했다”며 “홈구장에 처음 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야구장에 서니까 스스로 어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구는 볼의 구위나



내용을 떠나 타자와 상대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아직 준비할 시간이 많은 만큼 개막 일정에 맞

춰 몸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승환은 “하루 빨

리 팬들이 꼭 관중 앞에서 던지고 싶다”며 “그레이트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 '양현종 감독 vs 임기영 감독'

### KIA 이벤트, 오늘 구단 공식 유튜브서 중계



양현종과 임기영이 KIA 일일 사령탑이 돼 연습경기를 이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양현종 감독과 임기영 감독이 매치가 열린다. 맞붙는 KIA 타이거즈의 이벤트 KIA 구단은 '지난 11일 우천

으로 인해 연기됐던 이벤트 매치가 13일(오늘) 열린다”고 밝혔다.

KIA의 이벤트 매치는 맷 윌리엄스 감독이 조계현 단장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양현종과 임기영이 감독으로 팀을 지휘하는 연습경기다.

양현종과 임기영은 지난 10일 선수단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들을 직접 선발해 팀을 꾸렸다.

다만 투수진의 경우 전력 안배와 투구수 조절 등의 이유로 코칭스태프가 구성해 놓은 2개 조 가운데 한 조를 각각 선택했다.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 타이거즈 TV'가 중계할 예정이며 해설위원 출신인 서재웅 투수코치가 마이크를 잡는다.

## “도쿄올림픽, 2021년 개최도 장담 못해” 조직위 사무총장 발언

“도쿄올림픽의 2021년 개최도 장담할 수 없다.”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주니치스포츠는 11일(이하 한국 시간)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무토 도시로(77) 도쿄올림픽 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에 변수가 여전히 많다는 발언이다.

이에 따르면 무토 사무총장은 추가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무토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을지 여부

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장 대응으로 일본 내에서 비난받고 있다며 ‘일본의 야당 지도자들은 아베 총리가 올림픽을 올해 안에 열고 싶은 마음에 감염병을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K리그 SNS 인플루언서는? 광태휘-이동국-박주호-정승원

### 광태휘, 과거 사우디 리그 인기로 상당수 사우디 팬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하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가리켜 '인플루언서'라 칭한다. K리그에서 가장 많은 SNS 팔로워를 보유한 선수는 누구일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K리그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경남FC 베테랑 수비수 광태휘였다.

광태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64만6000명으로 K리그 가운데 가장 많다. 어마어마한 팔로워 수 가운데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인데, 과거 사우디 리그에서 뛰었을 때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2위는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전북 이동국이다. 이동국은 총 53만1000명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리그 내에서 입지는 물론이고 각종 TV 예능 출연으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울산 박주호가 총 팔로워 37만2000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유럽 무대와 대표팀에서의 활약으로 축구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박주호 역시 이동국과 같은 육아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건나블리' 아빠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

4위는 K리그 라이징스타 대구 정승원이다. 정승원은 총 34만4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이나 TV 출연 경험이 없을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다.

5위는 상위 5명 중에 유일한 외국인 선수이자 총 22만1000명 팔로워를 보유한 전북 벨타르이다. 아직 K리그 팬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네덜란드, 잉글랜드, 벨기에 등에서 프로 생활을 하며 프로통산 255경기 출전 112득점을 기록한 베테랑 공격수다.

이 밖에도 K리그 가운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선수들은 수원 FC 말로니(21만), 전북 이웅(6만), 부산 김문환(4만), 울산 정승현(4만) 등이 뒤를 이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팬 서비스를 실천하는 선수들도 있다. 얼마 전 성남으로 이적한 베테랑 골키퍼 김영광은 본인 이름이 마킹된 성남 유니폼 구매 후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실차 끌기 퍼자랑, 축구화 등을 사인해 보내주는 자체 이벤트를 열었다.

강원 신세계, 울산 김태환과 이동경 등은 자체 라이브 방송을 통해 K리그 개막이 연기돼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스스로 '호술랭'이라 칭하며 음식 사진이나 먹방을 올리는 전남 이종호, 육아 사진을 구단 계정에 올려달라고 제보하는 안양 유종현, 본인 계정 외에 직접 방문한 카페 리뷰를 올리는 계정을 따로 운영하는 아산 주원석 등 다양한 선수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 신분증 준비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발열체크 받고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